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 프로빗을 이용한 분석¹⁾

이 선우²⁾

- I. 서론
- II. 취업과 취업형태의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장애인 취업과 취업형태 분석
- V. 결론

I. 서론

장애인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소득보장대책은 장애인들이 만족스러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갖는 것이다.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소득보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취업이 소득보장에 있어서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1995년 현재 우리 나라 전체 15세 이상 인구의 62%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반면에 장애인들 가운데 33%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장애인의 취업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를 우리 나라 전체 인구와 비교

1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의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금을 받아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진행한 것임.

2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해 보면, 1995년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그 절반에 불과했다.³⁾ 이 연구는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장애인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소득보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심리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획득하여 자아실현의 기회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은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중에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등의 인구학적 요인,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의 의료적 요인, 교육, 직업관련서비스 등의 인적자본 요인, 장애인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과 같은 사회적 요인, 실업률 및 산업구조와 같은 경제적 요인 등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특히 이 연구가 주로 초점을 두는 영역은 직업관련서비스이다. 이 연구는 직업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이 장애인의 취업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는 지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려는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일환이며, 이 중에서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⁴⁾는 법률의 핵심적인 제도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시작으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할당의무고용제는 신체적·정신적·심리적으로 열등한 장애인이 일반인과 대등하게 직업 경쟁을 할 경우 선발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채용에 우선 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취업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⁵⁾ 한편, 이 법에 따른 직업 훈련 및 직업 지도는 장애인 개인의 인적 자본을 증진시켜서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여 취업률을 높이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첫 번째 주요 목적은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의료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 중에서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특히 직업관련서비스가

3 어 수봉에 따르면, 1990년 전국의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0%인 반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6.1%이다. 따라서, 5년 동안 전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한 반면, 장애인의 참가율은 오히려 낮아져서 그 차이가 더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어 수봉,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 분석," 장애인 고용, 봄호, 1996, pp. 23-37.

4 할당고용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방법 이외에도 장애인에게 일반노동자와 동등한 고용의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김 상균, "선진국의 장애인고용촉진 제도," 장애인직업재활, 1990.; 현 외성,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방안," 장애인고용, 제 2 호, 1991.; Adrienne Asch, "Disability,"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ed. 1995, NASW, Washington, D.C., pp. 752-761. 참조.

5 김 기원, "장애인 고용안정정책에 관한 연구," 선진화를 위한 정책 윤리 및 과제, 한국정책학회, 1995, p. 27.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취업여부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취업형태는 이 연구의 또 다른 관심영역이다. 취업의 형태는 크게 임금고용과 자영업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자영업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⁶⁾ 따라서, 장애인들 중에서 일부는 임금고용을 택하는 반면에 일부는 자영업을 선택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은 앞으로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직업재활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취업형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또한, 일반인들의 경우 자영업은 임금고용에 비해 임금과 근로시간의 측면에서 더 나은 선택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들의 경우에 자영업 선호도가 상당히 높으면서도 자영업이 임금노동에 비해 더 나은 선택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자영업 종사자와 임금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비교함으로써 장애인에게도 자영업이 더 나은 선택인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취업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취업과 취업형태의 이론적 배경

장애인의 취업과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의 취업과 취업형태에 관련된 이론들과 장애인의 취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취업과 취업형태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취업과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경제·사회적인 요인 및 개인적인 요인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경제·사회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으로 실업률, 산업구조와 같은 시장의 상황을 들 수 있다. 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되어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면 취업률은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특히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장애인의 취업 가능성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취업을 하지 못해서 실업의 상태에 있게 된 근로자들은 자영업에서 취업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성향이 증가한다.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보고,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p. 204.; 이 청자, "장애인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 사회복지, 봄, 116호, 1993, pp. 89-125.

산업구조의 변화도 취업률과 취업형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정보와 같은 고기술산업으로 이전되면서 이전에 필요했던 만큼의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취업률이 떨어지게 된다. 취업의 형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면서 자본의 집중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임금고용의 비율은 증가하고 소규모 자영업의 비율은 급속히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증가는 오히려 소규모자영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산업에서는 자본의 집중력도 중요하지만 인력의 창조성이 성공 여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증가는 자영업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장애인의 경우처럼 한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그 집단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의 정도와 같은 사회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 사회와 시기에는 장애인이 임금이 높고 근로 환경이 좋은 1차적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취업률이 낮을 가능성이 많아진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취업률이 낮아지면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별이 심한 사회 또는 시기에는 임금고용보다는 자영업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장애를 불편한 것으로 보고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전근대적이고 부정적인 장애인관을 갖고 있는 상태이다.⁷⁾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볼 수 있다. 즉, 조사에 따르면 능력을 갖춘 장애인이라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취업하기 ‘아주 어렵다’라는 응답과 ‘어려운 편이다’라는 응답을 한 직장인이 전체의 82.2%를 차지하였다.⁸⁾ 이와 같이 장애인이 취업하는데 어려운 요인으로 고용자의 이해부족이나 차별이 빈번히 언급되는 경향이 있다.⁹⁾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 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지적되었다.¹⁰⁾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장애인들은 실업 상태에 있거나 저임금의 육체노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장애인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대안인 자영업을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¹¹⁾

7 정 형용, 한국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3, p. 33.

8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장인의 장애인고용에 관한 의식조사”, 장애인고용, 봄, 19호, 1996, pp. 4-13.

9 정 재권·김 동연, “한국인의 장애자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특수교육학 연구, 제 1 집, 전주우석대학 특수교육연구소, 1988.; 이 종길, “복지관의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 장애인고용, 봄호, 제 15호, 1995, pp. 68-75. 참조.

10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 46.5%,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강화(자격제도) 23.8%, 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한 지원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18.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 태림,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2.

이와 같은 경제·사회적 요인들이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업률, 산업구조, 차별정도가 변하는 여러 시점의 시계열자료나 여러 국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2. 개인적인 요인

경제·사회적인 요인 외에도 개인적인 요인이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사회적인 요인이 여러 시점 또는 여러 사회의 장애인 취업률 및 취업형태가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반면, 개인적인 요인은 한 시점, 한 사회에서 취업을 하는 장애인과 취업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 임금고용에 참여하는 장애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장애인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요인을 다시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의료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인구학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에는 성별, 가구에서의 지위, 연령, 결혼상태 및 가구원 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성별과 관련해서 남성인 경우에 취업가능성이 높으며,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은 남성은 사회생활, 여성은 가정생활을 한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성역할에 대한 차이에서 남성의 취업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대구장애자복지관이 실시한 근로장애인 취업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총 취업자 중 남자는 92.4%, 여자는 7.6%로 나타나, 남자 장애인에 비해 여자 장애인의 취업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¹²⁾

성별은 취업형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Becker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히고 있다.¹³⁾ 여성이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여성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온순하고, 의존적이며, 경쟁을 싫어하며, 가사에 관심을 갖도록 교육을 받아왔다. 이러한 특성은 성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이며 경쟁을 필

11 Light(1980)는 이를 미국의 이민자들에게 적용시켰다. 이민자들은 언어의 문제,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 인종차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자영업에 많이 종사한다고 밝히고 있다. I. H. Light, "Asian enterprise in America: Chinese, Japanese, and Koreans in small business," in S. Cummings (ed.), *Self-help in urban America: Patterns of minority business enterprise*, National University Publications, 1980, pp. 33-57.

12 전 영평,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전략의 평가", *한국행정학보* 29(1), 1995, pp. 279-300.

13 E. H. Becker, "Self-employed workers: An update to 1983," *Monthly Labor Review*, 107(7), pp. 14-18.

요로 하는 자영업과는 잘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여성이 자영업에 종사하게 될 때에도 가사에 대한 책임도 맡기 때문에 자영업에서 성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 많은 편이다.

가구에서의 지위도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가구주인 경우에 가구의 소득원으로서 기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구성원보다 취업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취업의 형태에 있어서도 자영업에 종사할 때, 가구주인 경우에는 자신 외에도 다른 가구원의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구주는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인구학적 요인은 연령이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직업기술 및 경험이 더 많다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어 수봉은 장애인에 대한 기업의 수요조사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기업의 고용제외가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¹⁴⁾ 또한, 연령은 취업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쳐서, 연령이 많을수록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¹⁵⁾ 이는 도·소매상, 전문직과 같은 자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험, 자본 및 명성을 쌓을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⁶⁾. 또한, 정년퇴직 후에 계속 소득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

결혼상태는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인구학적 요인이다.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으면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의 필요성이 증가하며, 취업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취업형태에 있어서도 결혼상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으면, 자신의 소득 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도 모아서 자영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처음에 자영업을 시작하여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불안정할 때에도 배우자가 계속 임금노동에 참여함으로써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노동력의 측면에서도 기혼자들이 자영업에 종사하는데 유리하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기혼자들에게 배우자들은 임금은 많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일하며 믿을 수 있는 종업원이 된다. 따라서, 기혼자일수록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학적 요인은 가구원수이다. 취업에 있어서 가구원수가 많으면 장애인인 경우 생계를 위해 자신이 취업을 해야할 필요성이

14 어 수봉, 전제 논문, p. 29.

15 G. J. Borjas and S. G. Bronars,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immigration," *Science*, 235(4789), 1988, pp. 645-651.; J. S. Butler and C. Herring,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in America: Toward an explanation of racial and ethnic group variations in self-employment," *Sociological Perspectives*, 34(1), 1991, pp. 79-94.; S. W. Lee, *The ethnic character of self-employment: An analysis of nine ethnic groups in the state of California utilizing the 1990 Census Dat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95.

16 R. L. Aronson, *Self-employment: A labor market perspective*, Ithaca, NY: ILR Press, 1991.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가구원수가 많으면 취업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취업형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가구원수가 많으면 그만큼 무임금 가족노동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고 기대된다. 따라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자영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인적 자본 요인

취업을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자본 요인으로는 교육, 직업훈련, 자격증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의 하나는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도록 하는 일이다.¹⁷⁾

우선, 교육은 직업과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적 자본으로 장애인의 직업 재활에 중요한 요인이며, 재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면에서 일종의 예비직업훈련의 성격을 갖는다.¹⁸⁾ 어 수봉은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증가하면서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어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의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¹⁹⁾ 또한, 교육은 자영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관리 기술을 제공할 수 있어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평가, 직업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직업관련서비스는 취업과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주요 인적자본 요인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의무고용비율보다 낮은 이유로 장애인이 직무기술, 직업생활 적응기술 등이 부족하여 생산성을 저하시킬 것을 사업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²⁰⁾ 즉, 장애인의 취업률이 저조하게 되는 이유는 사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의무할당제가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라 하더라도 자격을 갖춘 장애인들이 제대로 없다면 실제로 장애인들의 취업을 확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직업관련서비스가 장애인의 취업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어 수봉도 직업훈련이 실업탈출확률²¹⁾을 증가시킨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취업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17 전 영평, 전계 논문, p. 288.

18 강 상욱, 심신장애자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19 어 수봉, 전계 논문, p. 27.

20 사업주들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장애인을 기피하는 것도 한 이유임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박 옥희·권 중돈,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pp. 53-4.; 김 용득·김 미옥,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동풍, 1994, pp. 374-398.)

21 어 수봉은 실업확률탈출이 장애인이 고용제의를 받아들여 취업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어 수봉, 전계 논문, p. 31.

자격증은 또 다른 인적자본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이다. 자격증이 있는 장애인은 취업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자영업을 시작하기에도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 수봉도 장애인의 의중임금²²⁾분석에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의중임금상승효과가 4.7%에 달해 교육년수 1년의 의중임금상승효과인 0.4%에 비해 훨씬 높다고 밝혔다.²³⁾

이상과 같이 교육, 직업관련서비스 및 자격증과 같은 인적 자원이 있으면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취업형태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 의료적 요인

일반인들과 달리 장애인들에게는 의료적 요인이 취업 및 취업형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5년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취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50.9%의 응답자가 '장애가 심해서 일하기 어렵다'는 것을 꼽았다.²⁴⁾ 어 수봉도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장애인의 의중임금이 차이가 난다고 밝히면서 이를 생산성의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⁵⁾ 그에 따르면, 특히 장애유형에 있어서는 시각, 언어, 지체장애인의 의중임금이 20% 이상 높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실업탈출확률도 언어·청각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힘으로써 이 두 장애형태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생산성의 차이는 장애인의 취업률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의 유형·정도가 취업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장애유형은 일반인들이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차별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 재권·김 동연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지체장애와 같은 가벼운 장애나 외형상에 큰 표시가 없는 청각장애를 선호하는 반면, 시각장애와 정신지체와 같은 장애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²⁶⁾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취업가능성의 차이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유형 및 정도는 취업형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장애정도가 심하여 이동이 자유롭지 못할수록 출·퇴근이 상대적으로 쉬운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22 어 수봉은 의중임금(reservation)이 현재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구직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받기를 원하는 임금수준으로, 구직자 스스로 자신의 인적 자본을 평가한 가치로 설명하고 있다. 어 수봉, 전계 논문, p. 25.

23 어 수봉, 전계 논문, p. 28.

24 정 기원 외 8인, 전계서.

25 어 수봉, 전계서, p. 27.

26 정 재권·김 동연, 전계서.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자영업이 임금고용보다 적극적이고 경쟁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심리적 요인

장애인은 일반인들과 다른 심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일반적으로 자기에 대한 위기감이 불안으로 발전하며, 필요 없는 우려나 사회적 불이익을 심각하게 생각하여 불안감이 커지게 된다. 또한, 장애인은 자신의 신체적 이상에 대해 열등감이 크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하여 대인관계에서 긴장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²⁷⁾ 특히, 정신지체인의 경우, 사교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동료와 원활한 관계를 이루기 어렵고, 협동작업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²⁸⁾ 따라서, 장애인이 갖고 있는 이러한 심리적 요인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어야 취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여러 장애인복지 전문가들은 장애인이 느끼고 있는 무력감, 소외감, 사회적 적대감과 같은 심리적 장애를 해소하여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²⁹⁾

또한, 장애인의 심리적인 요인이 정서적 의존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의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다. 취업형태에서 자영업은 성공하기 위해서 강한 독립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심리적 요인이 취업형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및 연구 문제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1995년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의 자료 중에서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의 취업여부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및 개인적 요인을 열거하였다. 따라서, 장애인의 취업여부와 취업형태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요인의 영향을 밝혀야 하지만 경제·사회적 요인의 분석을 위해서는 시계열자료나 또는 국가간 자료를 필요로 한다. 이 연구의 자료인 '활동제약자 실태조사'는 개인을 단위로 한 자료

27 한 태림, "사후지도", 장애인고용, 겨울, 18호, 1995, pp. 40-46.

28 최 영하, "정신지체아 직업재활의 서설적 연구", 특수교육학회지, 15(2), 1994, pp. 145-165.

29 강 위영, "취업을 위한 장애인의 올바른 자세", 장애인고용, 창간호, 1991, pp. 38-41.

로서 경제·사회적 요인이 장애인의 취업여부 및 취업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취업여부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의 분석에만 한정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초점을 둔다.

가.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의료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의 변수 중에서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무엇인가?

나. 인구학적 요인, 인적 자본 요인, 의료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 중에서 취업 및 취업형태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다. 임금과 근로시간의 측면에서 자영업이 임금고용에 비해 나은 선택인가?

2. 종속변수

1) 취업여부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장애인의 취업여부와 장애인의 취업형태(임금고용 대 자영업)이다. 먼저,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정의이다. 정기원의 8인은 이 문제에 대해 15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무업자를 제시하고, 무업자와 취업자의 비교를 통해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고 있다.³⁰⁾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의 특성이 장애인구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면 두 범주를 무업자의 범주로 통합하여 무업자와 취업자를 비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장애인의 경우에도 일반인들과 같이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 실업자와 취업자를 비교하는 것이 장애인의 취업을 분석하기 위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러면, 장애인들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를 주요 변수에 따라 비교해 보자. 우선, 연령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를 비교하면 두 집단의 차이는 분명해진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0대가 2.3%, 20대가 3.5%, 30대가 4.9%, 40대가 6.1%, 50대가 14.5% 및 60세 이상이 68.6%인 반면, 실업자는 10대가 6.3%, 20대가 19.0%, 30대가 19.2%, 40대가 19.5%, 50대가 22.8% 및 60세 이상이 13.2%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60세 이상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업자에서는 13.2%에 불과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평균연령은 63.9세이며, 실업자의 평균연령은 41.9세로 비경제활동인구는 노인층인 반면에 실업자는 청년층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결

30 정기원의 8인, 장애인 취업실태와 고용의 경제적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혼상태에 따른 비교도 두 집단의 차이를 나타낸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이혼, 별거, 사별'의 경우가 40.7%, 미혼인 경우는 7.5%인 반면, 실업자는 미혼인 경우가 32.7%, '이혼, 별거, 사별'의 경우가 14.6%로 나타났다.

교육연한에 있어서도 비경제활동인구의 평균 교육기간은 4.0인 반면에 실업자는 8.0으로 두 배나 많았다. 두 집단은 성별에 있어서도 비경제활동인구가 남성 40.3%, 여성 59.7%로 여성이 많았으나, 실업자에 있어서는 남성이 64.0%, 여성이 36.0%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비교에 비추어 볼 때, 비경제활동인구는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훨씬 많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를 동일집단으로 분류하여 무업자로 포괄하는 방법에는 상당히 무리가 뒤따른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과 취업이라는 두 집단을 비교한다. 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EMPLOY로 실업자인 경우에 '0', 취업자인 경우에 '1'로 코딩되었다.

2) 취업형태

본 연구의 두 번째 종속변수는 응답자의 취업형태로 임금고용과 자영업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변수는 응답자의 종사상의 지위가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0'으로 임금노동, '자영업자', '고용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에는 '1'로 자영업으로 코딩하였다.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장애인들과 전체 국민들을 비교해 보면, 취업장애인의 41.7%가 자영업자이며, 상시근로자가 26.9%, 일용근로자(임시근로자 포함)가 15.3%인 반면에 전체 취업국민의 20.4%가 자영업자, 상시근로자가 53.7%, 일용근로자가 8.8%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경우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전체 국민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시근로자는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조건이 일반적으로 열악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취업장애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두 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과 근로조건이 좋을 것으로 여겨지는 고용주는 장애인 중에서는 겨우 2.9%에 불과한 반면, 전체 국민 중에는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자영업 종사 장애인은 자영업자, 고용주, 가족종사자를 포함하여 취업장애인의 57.8%인 반면, 전체 국민 중에는 37.5%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1995년 종사상 지위에 따른 취업 장애인과 전체 취업국민의 비교 (단위:%)

	자영업자	고용주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가족 종사자
취업 장애인	41.7	2.9	26.9	15.3	13.2
전체 취업국민	20.4	7.5	53.7	8.8	9.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3.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의료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으로 나누었다. 인구학적 요인에는 성별, 가구주 여부, 연령, 결혼상태 및 가구원수가 있으며, 여기에서 연령과 가구원수는 연속변수이며, 그 외의 다른 변수는 이항변수이다. 성별은 남자는 '0', 여자는 '1'로, 가구주 여부는 '0'은 비가구주, '1'은 가구주로 코딩하였다. 결혼상태에 있어서는 '미혼'을 비교집단으로 한 두 더미(dummy)변수, 기혼 및 이혼·별거·사별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인적자본 요인에는 교육정도, 직업서비스 이용여부 및 자격증소지 여부가 있다. 교육은 연속변수이며, 그 외의 다른 변수는 이항변수이다. 1995년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에서 직업과 관련해서 직업관련 서비스(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취업알선, 취업후 적응지도 또는 사후관리)를 이용했는지 여부 및 직업훈련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그러나, 직업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나 직업훈련을 받은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 중에서 극히 낮았다. 따라서, 이 두 변수를 한 변수로 통합하여 직업서비스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직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를 '0', 이용한 경우를 '1'로 코딩하였다. 자격증소지 여부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0', 갖고 있는 경우를 '1'로 코딩하였다.

위의 변수들이 일반인의 취업·취업형태에 대한 분석에도 동일하게 중요한 변수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변수 외에도 의료적 요인 중에서 장애유형과 정도가 중요한 변수일 가능성이 많다.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른 요인들과는 상관없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의 유형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의 5가지로 나누었으며, 지체장애를 비교집단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집단을 더미변수로 만들었다. 이들 변수에서 '0'은 해당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1'은 해당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이다.

장애의 정도³¹⁾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생활불편정도, 일상생활 자립정도, 외부활동시 불편정도, 사회활동의 정도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사회활동의 정도는 정치활동, 종교활동, 개인적 사교모임, 사회봉사활동의 4분야에서 활동의 정도를 3단계로 측정된 것을 합한 변수이다. 따라서, 최소 4점에서 최고 12점까지 분포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코딩되었다. 다른 변수들은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다.

31 장애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장애등급이 사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장애등급에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9.2%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변수는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장애로 인한 심리적 상태가 장애인의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차별경험, 장애로 인한 정신적 부담, 본인의 장애인 자각 여부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차별경험은 5점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낸다. 본인의 장애인 자각 여부는 '0'이 '아니오', '1'이 '예'의 이항변수로 되어 있다.

4. 분석 방법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장애인의 취업여부 및 취업형태로 이항변수이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프로빗(Probit)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일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분석방법은 프로빗과 로짓(Logit)이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선형회귀모형은 종속변수가 연속변수라는 가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³²⁾ 프로빗과 로짓은 거의 비슷한 분석결과를 나타내지만 프로빗은 잔차가 정상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반면, 로짓은 잔차가 로그함수의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 연구의 사례 수는 1,000개가 넘기 때문에 정상분포를 따른다고 추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프로빗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에는 사회과학통계분석을 위한 SPSS와 경제통계분석을 위한 LIMDEP을 이용하였다.

IV. 장애인 취업과 취업형태 분석

1.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의 특성

이 연구의 대상인 경제활동인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70.6%, 여성은 29.4%이며, 가구주는 65.0%, 비가구주는 35.0%였다. 결혼상태에 있어서, 미혼은 17.7%, 기혼은 68.6%, 이혼·별거 및 사별은 13.7%였다. 또한,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의 평균 연령은 46.13세, 평균 교육 연한은 7.41로, 교육정도는 상당히 낮았다. 한편 전체 대상의 장애의 유형에 따른 분포를 보면, 지체장애가 68.5%로 가장 많으며, 청각장애가 15.8%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32 J. H. Aldrich and F. D. Nelson, Linear probability, logit, and probit models.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1984.

<표 2>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의 특성

변수	빈도수	백분율
성별		
남성	1003	70.6%
여성	417	29.4%
가구주 여부		
비가구주	497	35.0%
가구주	923	65.0%
결혼 상태		
미혼	251	17.7%
기혼	974	68.6%
이혼, 별거, 사별	195	13.7%
장애유형		
지체장애	972	68.5%
시각장애	87	6.1%
청각장애	224	15.8%
언어장애	55	3.9%
정신지체	82	5.8%

2. 취업

1)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장애 유형·정도 요인 및 심리적 요인으로 나누어 프로빗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표 3>의 모형 I 은 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프로빗 모형을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성별이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취업의 예측계수

변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모형 V
상수	0.006	0.835**	-0.323	0.044	-1.074**
성별	-0.015				-0.075
가구주 여부	0.442**				0.430**
연령	0.004				0.0001
기혼	0.527**				0.555**
이혼, 별거, 사별	0.187				0.177
가구원수	-0.045 †				-0.060*
교육정도		-0.033**			-0.035**
직업서비스		-0.450**			-0.300*
자격증		0.410**			0.273*
시각장애			0.247		0.272
청각장애			0.536**		0.504**
언어장애			-0.314		-0.089
정신지체			-0.379*		0.197
주관적 건강상태			0.067*		0.080*
생활불편정도			-0.031		-0.024
자립정도			0.105*		0.089 †
활동불편정도			0.078*		0.044
사회활동정도			0.032		0.048
차별경험				0.124**	0.100**
정서적 부담				0.140**	0.106**
장애인인지 여부				-0.073	-0.015
Log likelihood	-749.57	-775.18	-755.68	-771.98	-672.32
Likelihood Ratio χ^2	117.36 df=6 p=0.000	34.70 df=3 p=0.000	64.66 df=9 p=0.000	51.30 df=3 p=0.000	204.71 df=21 p=0.000
Corrected A-N R^2	0.143	0.046	0.083	0.067	0.245

† p < 0.1; * p < 0.05; ** p < 0.01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남성인 경우에 취업의 가능성이 여성의 취업 가능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의미 있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가구주 여부에 따라서는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에 가구주가 아닌 경우보다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가구주가 가족을 부양하는 전통적인 형태가 장애인이 가구주인 가구에서도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연령은 취업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혼상태는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혼을 한 응답자들은 미혼의 응답자들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이혼, 별거, 사별한 응답자들은 미혼의 응답자들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구 내에 일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많으면 장애인 가구원이 밖으로 나아가 생계를 벌어야될 필요성은 줄어들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인적 자본 요인에서는 교육과 직업서비스가 모두 취업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I에 따르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취업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의 교육수준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쉽게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그에 따른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도 향상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직업시장에서 향상된 기대수준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직업서비스도 응답자의 취업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훈련직종이 크게 제한되어 있으며, 목공예 또는 수공예와같이 시장성이 줄어들고 있으며 취업전망이 어두운 직종에 치중되어 있다는 사실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³³⁾ 따라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또는 직업훈련과 같은 인적 자본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단순노동직보다 나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인적 자본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것은 현재 장애인들이 주로 취업하는 분야가 상당히 취약하고 인적 자본을 그리 요구하지 않는 분야라고도 할 수 있다. 인적 자본을 요구하는 분야에는 장애인들이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취업장애인과 전체 취업자의 직업분포를 비교해 보자. <표 4>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며 소득이 많은 직업인 고위임직원, 전문가, 기술공 및 사무직원인 장애인은 8.2%에 불과했다.

33 정 형웅, 전개서.; 이 성민, 우리 나라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 34.

<표 4> 1995년 취업장애인과 전체 취업자의 직업분포

	입법 공무원, 고위 임직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 가	사무 직원	서비스, 판매 근로자	농업, 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원, 관련 기능 근로자	장치, 기계 조직원 조립원	단순 노무직 근로자
취업 장애인	1 0.1%	22 2.1%	29 2.7%	35 3.3%	175 16.6%	393 37.2%	140 13.3%	33 3.1%	228 21.6%
전체 취업자	525 2.6%	971 4.8%	1840 9.0%	2510 12.3%	4464 21.9%	2389 11.7%	3219 15.8%	2175 10.7%	2284 11.2%

반면에 전체 취업자 중에서 이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은 28.7%로 3배 이상 많았다. 반면에 소득이 낮은 농업, 어업종사자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비율은 장애인 중에서 58.8%, 전체 취업자 중에서는 22.9%로 절반 이하에 불과했다. 현재 농·어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단순노무직이 일반적으로 임금이 낮은 직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장애인은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전형적인 주변근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³⁴⁾ 농업, 어업이나 단순노무직은 교육이나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며 주로 신체적 노동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인식된다.³⁵⁾ 이런 면에서 볼 때, 장애인들 중에서 오히려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서비스를 받은 장애인이 취업하기가 더 어려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취업장애인과 전체취업자를 직업별로 1995년의 월평균 임금을 비교해 보자. 전체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은 92.8만원인데 비해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61.5만원으로 전체 취업자의 66%에 불과하다. 특히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이 낮은 직업은 취업장애인 중에서 비중이 높은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와 단순노무직 근로자이다. 이들 직업에서는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이 전체 평균의 각각 44.8%, 71.9%에 불과하다.

직업서비스가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이유로 장애인 직업재활에 있어서 주된 대상은 정신지체인이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정신지체인의 경우에 직업재활이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신지체인의 취업율이 가장 낮으며 가장 취업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에 다른 종류의 장애인 경우, 취업을 저해하는 요인은 오히려 사회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취업이 가장 어려운 정신지체인이 주로 직업훈련을 받기 때문에 직업서비스가 취업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34 어 수봉, 전계 논문, p. 24.

35 전 영평, 전계 논문, p. 295.

<표 5>. 1995년 월평균 임금: 취업장애인과 전체 취업자 (단위: 만원)

	취업 장애인	전체 취업자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50.0	174.6
전문가	195.4	123.3
기술공 및 준전문가	121.7	104.7
사무직원	96.9	88.3
서비스 근로자 및 판매근로자	81.6	73.4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36.4	81.2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77.1	83.8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00.9	85.5
단순 노무직 근로자	47.3	65.8
전체 평균	61.5	92.8

인적 자본변수 중에서 유일하게 장애인의 취업 가능성을 높인 변수는 자격증이다. 자격증이 있는 응답자는 자격증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3>의 모형 III에서는 장애유형·정도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교집단은 지체장애로 설정하였다. 지체장애인과 취업가능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집단은 청각장애와 정신지체이며, 청각장애인은 지체장애인보다 취업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정신지체인은 지체장애인보다 취업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정신지체인의 취업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의 정도가 취업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대부분의 변수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좋을수록 장애인의 취업가능성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생활불편정도는 이 표본에서는 장애인의 취업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자립정도도 취업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활동의 정도는 취업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외부활동에서 불편정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V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심리적 요인도 장애인의 취업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차별경험이 없다고 대답할수록 취업가능성이 높았으며, 정서적 부담이 없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차별경험이 적다고 응답한 장애인일수록 일반인들과 관계가 원활하다고 본다면 일반인들에게 적응을 잘하는 장애인이 취업을 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

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취업자일수록 일반인들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기회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결과는 주목할만한 것이라고 하겠다. 반면에 자신의 장애를 인지하는 지 여부는 취업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Likelihood Ratio를 비교해 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4 모형 중에서 설명력이 가장 높은 모형은 인구학적 요인모형이며, 다음으로 장애유형·정도 요인, 심리적 요인이며, 인적자본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모형 V에서는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장애유형·정도 요인 및 심리적 요인을 모두 포함시켜서 프로빗분석을 하였다. 통합모형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다른 요인들의 변수들이 각각의 모형에서의 유의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장애유형·정도요인의 변수들은 통합모형에서 그 유의수준을 크게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장애유형·정도요인은 타 요인과 함께 사용될 때 그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별 모형 및 통합모형에서 각 변수의 계수를 살펴보면, 유의미한 변수들의 방향은 대체로 이론적 배경에서 예상했던 방향과 일치한다. 특히, 인구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에서는 대부분 예상했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던 인적자본요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교육 및 직업서비스가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및 직업서비스의 내용을 바꾸어서 장애인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빗의 계수와 관련해서 프로빗분석은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회귀분석과는 달리 프로빗의 계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변수의 값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독립변수의 영향을 직접 해석하기 어려워서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프로빗의 계수 자체를 사용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독립변수의 값을 대입하여 얻은 종속변수가 발생할 예상 확률³⁶⁾의 변화를 비교하여야 한다.

36 예상확률은 <표 3>의 모형 V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즉,

$$Y^* = -1.074 - 0.075 \times \text{성별} + 0.430 \times \text{가구주} + 0.0001 \times \text{연령} + 0.555 \times \text{기혼} + 0.177 \times \text{이혼여부} - 0.060 \times \text{가구원수} - 0.035 \times \text{교육정도} - 0.300 \times \text{직업서비스} + 0.273 \times \text{자격증} + 0.272 \times \text{시각장애} + 0.504 \times \text{청각장애} - 0.089 \times \text{언어장애} + 0.197 \times \text{정신지체} + 0.080 \times \text{건강상태} - 0.024 \times \text{생활불편정도} + 0.089 \times \text{자립정도} + 0.044 \times \text{활동불편정도} + 0.048 \times \text{사회활동정도} + 0.100 \times \text{차별경험} + 0.106 \times \text{정서적부담} - 0.015 \times \text{장애인지}$$

이 공식에 표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값을 대입하여 <표 6>에서 Y*를 나타내는 열의 값을 계산한다. 이 값을 정규분포확률의 값에 대입하면 PROB(Y*)의 값을 구할 수 있다.

<표 6> 취업의 예측³⁷⁾

성별	결혼상태	교육정도	직업 서비스	자격증	장애 정도	심리적 요인	Y*	PROB(Y*)
남성	기혼	대졸	받았다	있다	4	4	0.845	0.801
남성	기혼	고졸	받았다	있다	4	4	0.985	0.838
남성	기혼	고졸	받지 않았다	있다	4	4	1.285	0.901
남성	기혼	대졸	받았다	없다	4	4	0.572	0.716
남성	기혼	대졸	받았다	있다	2	4	0.371	0.645
남성	기혼	대졸	받았다	있다	4	2	0.433	0.667
여성	기혼	초졸	받지 않았다	없다	4	4	1.147	0.874
여성	이혼, 사별 별거	초졸	받지 않았다	없다	4	4	0.769	0.779

표에 따르면, 장애정도와 심리적 요인의 정도가 '4'이며, 직업서비스를 받았고 자격증도 있는 대학을 졸업한 기혼남성이 취업할 확률은 80.1%로 나타났다. 반면에 모든 다른 조건이 같은 상태에서 교육정도만 고등학교졸업인 남성이 취업할 확률은 83.8%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서비스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할 확률이 90.1%로 더 높아진다. 반면에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은 상황에서 자격증만 없는 남성은 취업할 확률이 71.6%로 크게 떨어졌다. 따라서, 교육정도와 직업서비스는 취업확률을 낮추는 반면에 자격증은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장애정도도 취업확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조건이 같은 상태에서 장애정도가 '4'인 대졸 기혼남성의 취업확률은 80.1%인 반면, 장애정도가 '2'인 남성의 취업확률은 64.5%로 낮았다. 또한, 심리적 요인도 취업확률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심리적 요인이 '4'인 기혼남성의 경우 취업확률이 80.1%에서 심리적 요인이 '2'로 낮아지면서 취업확률도 66.7%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7 가구주는 1(가구주); 연령은 40세; 가구원 수는 4; 장애종류는 0(지체장애); 본인의 장애인 자각 여부는 1(예)인 경우이다. 장애정도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는 4=비교적 건강한 편이다, 2=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생활불편정도는 4=불편이 없는 편이다, 2=약간 불편하다; 일상생활 자립정도는 4=대부분의 생활을 혼자 가능, 2=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외부활동시 불편정도는 4=불편하지 않은 편이다, 2=약간 불편을 나타낸다. 심리적 요인에서 사회적 차별경험은 4=없는 편, 2=많은 편; 장애로 인한 정신적 부담은 4=별로 안 부담, 2=약간 부담을 나타낸다.

여성의 경우에 직업서비스도 받지 않고 자격증도 없는 여성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기혼여성의 취업확률은 87.4%로 남성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지만, 이혼하거나 별거 또는 사별한 여성의 취업확률은 77.9%로 10% 정도 낮아졌다.

3. 취업의 형태

1)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인의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장애유형·정도 및 심리적 요인의 모형을 살펴보았다. 우선, <표 7>의 모형 I은 인구학적 요인 모형을 나타낸다. 인구학적 요인 중에서 성별은 취업형태에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가구주 여부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가구주일수록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은 많을수록 장애인이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자영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 기술 및 경험을 얻게 된다는 이론적 주장과 부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상태에 있어서도 기혼인 경우 미혼인 경우에 비해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혼, 별거, 사별인 경우는 미혼인 경우와 자영업종사 가능성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볼 때, 과거에 결혼했는 지 여부보다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지 여부가 자영업종사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경제적인 측면과 인력의 측면에서 자영업에 종사하기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 배우자의 재정 및 노동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혼인 경우에 자영업에

<표 7> 취업형태의 예측계수

변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모형 V
상수	-1.479**	0.577**	0.932**	-0.199	-1.507**
성별	-0.036				-0.052
가구주 여부	-0.267*				-0.200
연령	0.031**				0.028**
기혼	0.489**				0.587**
이혼, 별거, 사별	0.032				0.034
가구원수	0.018				0.023
교육정도		-0.054**			-0.018
직업서비스		-0.335 †			-0.103

자격증		0.159			0.253*
시각장애			0.194		0.162
청각장애			0.238*		0.004
언어장애			-0.256		-0.278
정신지체			-0.057		0.566*
주관적 건강상태			-0.037		0.009
생활불편정도			-0.111**		-0.104*
자립정도			-0.055		-0.040
활동불편정도			-0.043		-0.052
사회활동정도			0.003		0.042
차별경험				0.116**	0.081*
정서적 부담				-0.043	0.052
장애인지 여부				0.201*	0.154†
Log likelihood	-649.15	-678.50	-679.47	-695.57	-595.72
Likelihood Ratio χ^2	140.05 df=6 p=0.000	39.66 df=3 p=0.000	42.89 df=9 p=0.000	16.16 df=3 p=0.001	180.60 df=21 p=0.000
Corrected A-N R^2	0.203	0.064	0.069	0.027	0.263

† p < 0.1; * p < 0.05; ** p < 0.01

<표 8> 취업형태에 따른 평균 수입 비교

	월 평균 수입				월 평균 가구 수입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
자영업	566	57.7	73.9	t=2.32 p=0.021	581	87.2	85.0	t=3.80 p=0.000
임금노동	424	66.6	45.6		436	107.4	81.8	

<표 9> 취업형태에 따른 월평균 근무일수 및 주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근무일수				주 평균 근무시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
자영업	592	24.1	6.4	t=4.94 p=0.000	591	53.6	24.6	t=1.63 p=0.104
임금노동	428	22.1	6.7		426	51.4	19.5	

종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모형 II의 인적자본 요인 중에서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그리고 직업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자영업보다는 임금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적자본이 많은 장애인일수록 자영업보다는 임금노동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표 8>의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의 비교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취업형태의 월평균 임금을 비교해 보면, 자영업자의 월평균 임금은 57.7만원,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66.6만원으로 임금노동자가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표 9>의 월평균 근무일수에서도 자영업자는 임금노동자에 비해 더 오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평균 근무시간에 있어서도 비록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에 비해 오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금과 근무시간을 비교해 볼 때, 자영업은 임금노동에 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적자본이 많은 장애인들이 꺼려하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유형과 정도는 취업의 형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형 III의 분석을 보면, 장애의 유형은 취업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청각장애의 경우 지체장애보다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시각장애, 언어장애 및 정신지체는 취업형태에서 지체장애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장애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변수들 중에서 생활불편정도는 취업의 형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생활불편정도가 심할수록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이 임금노동에 쉽게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록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주관적 건강상태, 자립정도 및 활동불편정도의 장애정도 변수가 모두 자영업 종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립정도가 낮을수록, 활동불편정도가 심할수록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모형 IV의 심리적 요인 모형에 따르면, 장애인의 심리상태도 취업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애인이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정도가 적을수록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자신의 장애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더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스스로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많은 임금노동보다는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형태를 설명하는 여러 모형 중에서 인구학적 요인모형의 Likelihood Ratio가 가장 크게 나타나서 그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설명력이 약한 모형은 심리적인 요인이다.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장애유형·종류 요인, 심리적 요인 모두를 함께 분석한 모형 V의 통합모형을 보면, 인구학적 요인 중에서 연령, 기혼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요인 중에서는 개별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자격증이 통합모형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요인들과 함께 고려했을 때,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자격증이 자영업에 종사하는데 유리한 직종의 자격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장애유형에서 정신지체도 개별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통합모형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때, 정신지체인의 경우 사회에서 임금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장애정도 요인 및 심리적 요인에서는 개별모형과 통합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인구학적 요인을 제외하고 장애유형·정도 요인모형이 취업형태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취업형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장애유형·정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형태의 예측은 <표 7>의 모형 V의 계수로 추출한 공식³⁸⁾에 독립변수의 값을 대입하여 얻을 수 있다.

38 취업형태의 예측 공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Y^* = & -1.507 - 0.052 \times \text{성별} - 0.200 \times \text{가구주} + 0.028 \times \text{연령} + 0.587 \times \text{기혼} + 0.034 \times \text{이혼여부} \\
 & + 0.023 \times \text{가구원수} - 0.018 \times \text{교육정도} - 0.103 \times \text{직업서비스} + 0.253 \times \text{자격증} + 0.162 \times \text{시각장애} \\
 & + 0.004 \times \text{청각장애} - 0.278 \times \text{언어장애} + 0.566 \times \text{정신지체} + 0.009 \times \text{건강상태} - 0.104 \\
 & \times \text{생활불편정도} - 0.040 \times \text{자립정도} - 0.052 \times \text{활동불편정도} + 0.042 \times \text{사회활동정도} + 0.081 \\
 & \times \text{차별경험} + 0.052 \times \text{정서적부담} - 0.154 \times \text{장애인지}
 \end{aligned}$$

<표 10> 취업형태의 예측³⁹⁾

성별	결혼상태	교육정도	자격증	장애종류	Y*	PROB(Y*)
남성	기혼	고졸	있다	지체장애	0.235	0.593
남성	기혼	고졸	없다	지체장애	-0.018	0.493
남성	기혼	대졸	없다	지체장애	-0.09	0.464
남성	미혼	고졸	있다	지체장애	-0.352	0.362
남성	기혼	고졸	없다	정신지체	0.548	0.708
여성	기혼	고졸	있다	지체장애	0.183	0.573
여성	기혼	고졸	없다	지체장애	-0.07	0.472
여성	이혼, 사별, 별거	고졸	없다	지체장애	-0.623	0.267

<표 10>의 PROB(Y*)은 위의 식에 각 독립변수의 값을 대입하여 계산한 자영업에 종사할 확률이다. 이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이며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고졸 기혼남성이 자영업에 종사할 확률은 59.3%이다. 반면에 동일한 조건에서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영업에 종사할 확률이 49.3%로 낮아졌다. 또한, 교육수준이 대졸로 높아지면 자영업에 종사할 확률은 46.4%로 더 낮아졌다.

결혼상태가 자영업 종사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영업 종사확률이 59.3%인 기혼남성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미혼남성을 비교하였다. 고졸 미혼남성의 자영업 종사확률은 36.2%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에 고졸 기혼남성이 장애종류가 지체장애에서 정신지체로 바뀌면 자영업 종사확률은 70.8%로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자영업 종사확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체장애인이며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고졸 기혼여성의 자영업 종사확률은 57.3%로 낮아졌다. 자격증도 갖고 있지 않으며 이혼·사별 또는 별거 중에 있는 여성의 자영업 종사확률은 26.7%로 크게 낮아졌다.

39 가구주는 1(가구주); 연령은 40세; 가구원 수는 4; 직업서비스는 0(받지 않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4(비교적 건강한 편이다); 생활불편정도는 4(불편이 없는 편이다); 일상생활 자립정도는 4(대부분의 생활을 혼자 가능); 외부활동시 불편정도는 4(불편하지 않은 편이다); 사회활동 참여정도는 4; 사회적 차별 경험은 4(없는 편); 장애로 인한 정신적 부담은 4(별로 안 부담); 본인의 장애인 자각 여부는 1(예)인 경우이다.

V. 결론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장애유형·정도 요인 및 심리적 요인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인적자본 요인이다. 프로빗 분석을 통하여 4 요인이 장애인의 취업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인적자본 요인은 취업가능성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분포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은 주로 저임금으로 특징지워지는 농·어업종사자, 단순노무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 임금이 높고 작업환경이 좋은 직업의 비율은 상당히 낮았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의 경우에 일반인과 같이 교육 및 직업서비스를 받으면 임금이 높고 작업환경이 좋은 직업을 구하고자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그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장애인의 경우, 오히려 교육 및 직업서비스와 같은 인적자본이 많을수록 더욱 취업을 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볼 때, 지금까지의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직업서비스가 기대했던 결과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적자본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직업서비스의 내용 면에서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쉽게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이 없어져서 고용주가 장애와 관련된 특성으로 장애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능력만으로 장애인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장애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업체의 물리적 환경을 준비하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등 사회환경적인 조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직업적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업과 관련된 능력을 개발하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외에도 사회환경의 변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⁴⁰⁾

취업형태에 있어서 인적자본이 많을수록 임금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인들에게 자영업은 임금노동보다 더 나은 선택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자영업은 임금노동보다 못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은 인적자본이 많을수록 자영업보다는 임금노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자영업 종사장애인과 임금노동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을 비교해 보아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자영업자의 월평균 임금은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의 8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임금노동의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에 있어서도 자영업자는 임금노동자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많은 장애인들이 자영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자영업이 임금노동에 비해 더 나은

40 김 용득·김 미옥, 전개 논문, pp. 394-5.

선택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차별과 장애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취업형태로 자영업을 확대하기보다는 임금이 높고 작업환경이 나은 직장을 많이 제공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